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11. 07. ~ 11. 13.

전남농업정보

110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건고추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마늘 · 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 명품배, 해외시장 200톤 수출길에 올라
- 논산 고구마 홍콩 첫 수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도 특산물 섬초 가공기술 개발로 명품화 추진
- 딸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정책동향

- 전남도, 올해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5명 확정
- 내년도 벼 종자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사업신청 및 홍보

- 작은 아이디어가 꽃 문화를 바꿉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18~19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후반에는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건고추·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 마늘·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순천시, 로컬푸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가 팸투어 실시
- ▶ 나주시, 내년에 '농업용 드론 전문반' 운영
- ▶ 광양시, 새로운 화훼 소득 작물 안개꽃 출하
- ▶ 고흥군, '땅심 키우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11월 말까지 신청
- ▶ 보성군, 맥류 만파대책 현장기술지도 나서
- ▶ 화순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획득
- ▶ 강진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본격 시작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순천 명품배, 해외시장 200톤 수출길에 올라
- ▶ 논산 고구마 홍콩 첫 수출
- ▶ 올해 산 제주감귤 대미 수출 개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4

-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유인방법 설정
- ▶ 포도 “캠벨얼리” 간이 비가림 유기재배 과원의 클로버 녹비 재배 효과
- ▶ 토마토잎말림바이러스(TYLCV)의 토마토 저항성품종 추천
- ▶ 쌀 유기재배 유형별 품질 및 기능성성분 함량
- ▶ 전남도 특산물 섬초 가공기술 개발로 명품화 추진
- ▶ 딸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 전남 산 쪽 천연 화장품으로 변신
- ▶ 가공적성 우수한 친환경 조사료 벼 영우 개발
- ▶ 먹을 수 있는 잡곡 피의 항당뇨 효과 밝혀
- ▶ 늦게 심은 양파 관리하는 이렇게!
- ▶ 해바라기 재배와 태양열로 토양 소독하면 인삼 이어짓기 피해 예방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7

- ▶ 협동조합플래너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9

- ▶ 전남도, 올해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5명 확정
- ▶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 ▶ '17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다수확품종(황금누리·호품) 제한
- ▶ 내년도 벼 종자를 사전에 확보합시다

❁ 해외 농업정보 44

- ▶ 중국, 저가전략의 수입산 우유 확대
-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 한국에서 보관한다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1. 1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수출 수요의 약세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수출 규제에 따른 중국시장 약세에 대한 우려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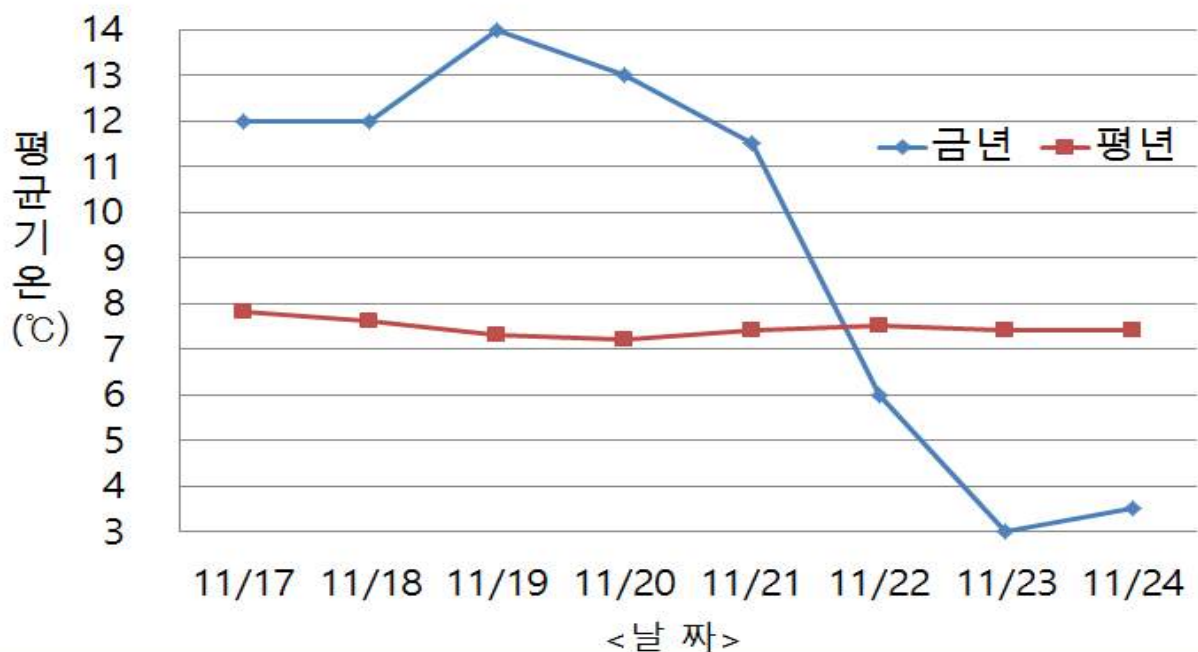
- ▶ 작은 아이디어가 꽃 문화를 바꿉니다
- ▶ 한국 농업인들 TV속으로 뛰어 든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4	7.5	1.9	13.0	13.1	-0.1	5.8	2.7	3.0	1.4
11. 17.(목)	12.0	7.8	4.2	17.0	13.1	3.9	7.0	3.5	3.5	1.5
11. 18.(금)	12.0	7.6	4.4	18.0	13.0	5.0	6.0	3.0	3.0	1.4
11. 19.(토)	14.0	7.3	6.7	17.0	12.8	4.2	11.0	2.6	8.4	1.3
11. 20.(일)	13.0	7.2	5.8	16.0	12.8	3.2	10.0	2.5	7.5	1.5
11. 21.(월)	11.5	7.4	4.1	15.0	13.2	1.8	8.0	2.5	5.5	1.4
11. 22.(화)	6.0	7.5	-1.5	8.0	13.3	-5.3	4.0	2.6	1.4	1.2
11. 23.(수)	3.0	7.4	-4.4	6.0	13.3	-7.3	0.0	2.5	-2.5	1.3
11. 24.(목)	3.5	7.4	-3.9	7.0	13.2	-6.2	0.0	2.7	-2.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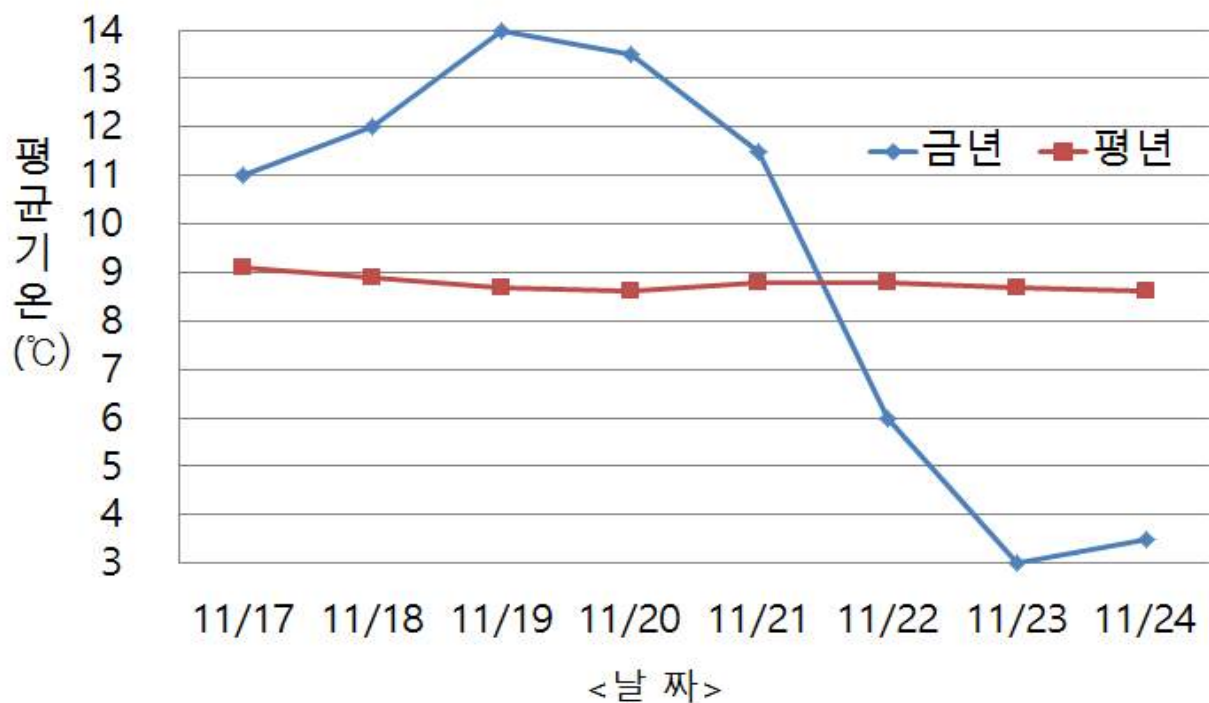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3	8.8	0.5	12.5	13.9	-1.4	6.1	4.7	1.4	1.4
11. 17.(목)	11.0	9.1	1.9	16.0	13.9	2.1	6.0	5.3	0.7	1.4
11. 18.(금)	12.0	8.9	3.1	17.0	13.8	3.2	7.0	4.9	2.1	1.3
11. 19.(토)	14.0	8.7	5.3	16.0	13.7	2.3	12.0	4.6	7.4	1.3
11. 20.(일)	13.5	8.6	4.9	16.0	13.8	2.2	11.0	4.5	6.5	1.4
11. 21.(월)	11.5	8.8	2.7	14.0	14.0	0.0	9.0	4.6	4.4	1.5
11. 22.(화)	6.0	8.8	-2.8	8.0	14.2	-6.2	4.0	4.5	-0.5	1.2
11. 23.(수)	3.0	8.7	-5.7	6.0	14.0	-8.0	0.0	4.5	-4.5	1.4
11. 24.(목)	3.5	8.6	-5.1	7.0	13.9	-6.9	0.0	4.6	-4.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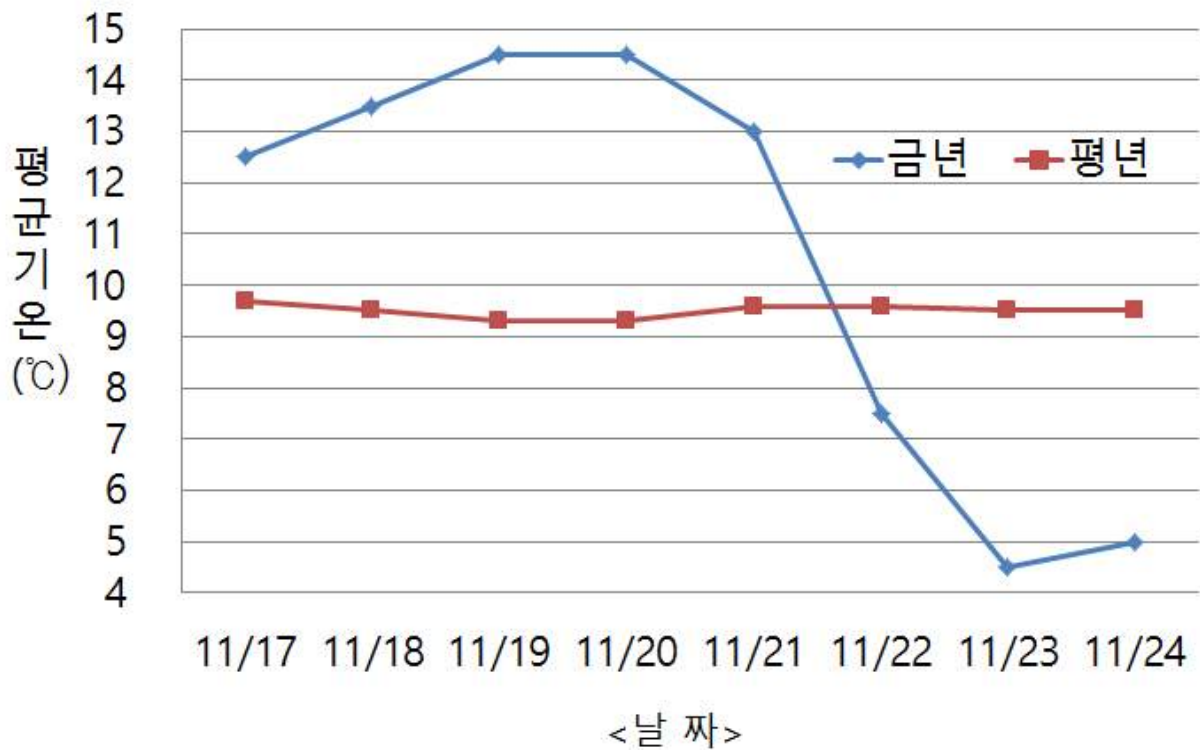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0.6	9.5	1.1	13.3	13.4	-0.2	8.0	6.1	1.9	1.4
11. 17.(목)	12.5	9.7	2.8	16.0	13.6	2.4	9.0	6.5	2.5	1.1
11. 18.(금)	13.5	9.5	4.0	17.0	13.4	3.6	10.0	6.2	3.8	1.1
11. 19.(토)	14.5	9.3	5.2	16.0	13.2	2.8	13.0	5.9	7.1	1.2
11. 20.(일)	14.5	9.3	5.2	17.0	13.3	3.7	12.0	5.9	6.1	1.7
11. 21.(월)	13.0	9.6	3.4	15.0	13.5	1.5	11.0	6.1	4.9	1.5
11. 22.(화)	7.5	9.6	-2.1	10.0	13.6	-3.6	5.0	6.1	-1.1	1.0
11. 23.(수)	4.5	9.5	-5.0	7.0	13.4	-6.4	2.0	6.1	-4.1	1.7
11. 24.(목)	5.0	9.5	-4.5	8.0	13.3	-5.3	2.0	6.2	-4.2	1.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건고추 생산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6년산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2016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0. 20.), 7월 중순부터 지속된 폭염 및 가뭄으로 해충과 생리장해 발생이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관측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10~15% 감소한 8만 3천~8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32,179	257~274	82.7~88.2
2015년	34,514	283	97.7
평 년	41,351	242	99.9
전년대비	-6.8	-9.2~-3.2	-15.4~-9.7
평년대비	-22.2	6.8~13.4	-17.2~-11.8

□ 가격전망 : 11월 가격 지난달보다 낮을 전망

-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11월 화건 상품 600g당 건고추 평균 산지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10월(4,44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8,100원)와 지난달(5,890원)보다 낮은 5,7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대파 출하 · 가격 · 생산전망

□ 출하전망 : 11월 대파 출하량 지난해 대비 4% 감소

- 11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지난해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단수는 8월 지속된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 지난해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전망 : 11월 도매가격 지난해 대비 높을 전망

- 11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지난해(1,820원)과 평년(1,380원) 대비 높은 2,100원/kg 내외가 전망된다.
- 11월 가격은 주산지인 경기와 강원도의 노지대파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겨울대파 출하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 작황은 부진

- 전남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3, 7% 감소한 3,178ha로 발표되었다.(통계청, 10. 27.)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 겨울대파 작황은 지난해보다 부진하나, 10월 이후 산지 기온 하락과 적절한 강우로 지난달보다는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내년 1월 대파 정식의향면적(내년 4~6월 출하)은 최근 대파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늘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저장동향 : 난지형 마늘 재고량 7만 3천톤 추정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11% 많으나, 평년보다 12% 적은 약 7만 3천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재고량(10월말 기준)

(단위 : 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6년	92,973	16,426	3,146	73,400
2015년	85,576	17,067	2,406	66,103
평 년	107,000	20,000	3,277	83,723
전년대비	8.6	-3.8	30.8	11.0
평년대비	-13.1	-17.9	-4.0	-12.3

□ 가격전망 : 11월 간마늘 도매가격 지난달과 비슷

○ 11월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마늘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28% 높은 7,000~7,100원/kg으로 전망된다. 11월 마늘 가격은 TRQ 도입 및 방출로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7년산 재배면적 9% 내외 증가 전망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0. 20.),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난지형 마늘은 호남·영남·제주에서는 양파 농가들이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높은 대서종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난지형 남도종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5%, 대서종은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2,270~23,000ha로 지난해보다 7~11%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저장동향, 가격전망, 재배의향

□ 저장동향 : 2016년산 양파 재고량 43만 8천톤 추정

- 2016년산 양파의 저온저장고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63만 2천톤으로 추정된다.
- 10월 말 기준, 감모를 감안한 2016년산 양파 재고량은 입고량이 많은데다, 초기 출고량도 적어 지난해보다 20% 많으나, 평년보다 3% 적은 43만 8천톤으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11월 도매가격 지난달과 비슷할 전망

- 11월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양파 저장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으며, 지난달과는 비슷한 95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 감소 전망

- 10월 5일 태풍 '차바'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에도 주산지의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전국적으로 양파 모종에 습해가 발생하였고, 재배의향면적 조사치는 지난달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생종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2016년산보다 20%, 중만생종은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작년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던 제주의 감소 폭이 3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만생종은 전남과 경남 지역이 각각 5,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 천 ha, %)

2017년	2016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18.7~19.1	19.9	20.2	-5.8~-4.1	-7~-5.3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1. 1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14)	1주일전 (1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29,000	37,000	42,167	↓ 12.4	↓ 23.2
	콩(백태)	35kg	158,000	152,000	152,000	146,400	177,400	↑ 7.9	↓ 10.9
	고구마(밤)	10kg	25,200	25,200	25,440	21,550	21,757	↑ 16.9	↑ 15.8
	감자(수미)	20kg	28,000	27,000	25,400	25,600	25,040	↑ 9.4	↑ 11.8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740	660	-	415	463	↑ 78.3	↑ 59.8
	양배추	10kg	13,200	11,400	10,800	3,900	4,820	↑ 238.5	↑ 173.9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333	33,667	35,133	22,000	23,807	↑ 10.6	↑ 2.2
	애호박	8kg	19,800	24,600	28,960	18,850	22,577	↑ 5.0	↓ 12.3
	토마토	10kg	30,200	30,200	38,280	16,750	24,733	↑ 80.3	↑ 22.1
	당근	20kg	67,400	56,400	50,600	27,000	31,307	↑ 149.6	↑ 115.3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4,000	806,000	895,333	↓ 28.0	↓ 35.2
	풋고추	10kg	74,600	71,000	46,600	31,750	41,540	↑ 135.0	↑ 79.6
	마늘(깐마늘)	20kg	144,000	144,000	140,000	138,000	110,533	↑ 4.3	↑ 30.3
	양파	20kg	20,800	19,800	19,440	31,900	20,053	↓ 34.8	↑ 3.7
	대파	1kg	2,300	2,340	2,378	1,750	1,461	↑ 31.4	↑ 57.4
	파프리카	5kg	24,000	21,800	31,160	13,350	24,120	↑ 79.8	↓ 0.5
	멜론	8kg	27,200	28,800	23,600	18,500	22,927	↑ 47.0	↑ 18.6
	방울토마토	5kg	26,200	22,400	30,120	10,100	12,533	↑ 159.4	↑ 109.0
	수박	1개	13,600	12,400	13,280	7,500	8,487	↑ 81.3	↑ 60.2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200	37,800	-	36,000	42,133	↑ 6.1	↓ 9.3
	배(신고)	15kg	36,600	35,400	37,000	41,900	40,167	↓ 12.6	↓ 8.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른(%)	
		판매 단위	당일 (11/14)	1주일전 (1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3,600	513,600	524,000	532,000	540,333	↓ 3.5	↓ 4.9
	느타리버섯	2kg	15,000	15,800	13,120	11,450	11,693	↑ 31.0	↑ 28.3
	새송이버섯	2kg	9,200	9,000	9,720	8,400	8,187	↑ 9.5	↑ 12.4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58	8,082	8,026	7,799	6,690	↑ 3.3	↑ 20.4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96	1,924	1,985	1,902	1,691	↑ 4.9	↑ 18.0
	닭고기	1kg	5,366	5,826	5,586	5,184	5,835	↑ 3.5	↓ 8.0
	계란(특란)	30개	5,671	5,650	5,591	5,329	5,663	↑ 6.4	↑ 0.1
	우유	1리터	2,528	2,528	2,523	2,550	2,462	↓ 0.9	↑ 2.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1. 14.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른(%)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99 천원	5,601 천원	5,788 천원	↓ 1.8	↓ 4.9
	거세	6,272 "	6,341 "	6,688 "	↓ 1.0	↓ 6.2
송아지 (6~7월)	암	2,519 "	2,667 "	2,537 "	↓ 5.5	↓ 0.7
	수	3,188 "	3,169 "	3,138 "	↑ 0.5	↑ 1.5
육우(600Kg)		3,035 "	3,097 "	3,468 "	↓ 2.0	↓ 12.4
젖소수송아지(7일령)		281 "	281 "	312 "	- 0	↓ 9.9
돼지(110kg)		377 "	385 "	383 "	↓ 2.0	↓ 1.5
육계(원/kg)		1,505 원	1,487 원	1,336 원	↑ 1.2	↑ 12.6
계란(원/특란10개)		1,243 "	1,230 "	1,112 "	↑ 1.0	↑ 11.7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5145원/마리 (△242) * (5,658 - 2,332 + 3,188 = 6,514)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로컬푸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가 팸투어 실시

- 순천시는 로컬푸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고 시식하는 농가체험 팸투어를 추진한다. 이번 팸투어는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11. 4.~12. 7.까지 총 11회에 걸쳐 45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 투어는 적토미 수확, 녹차잎 따기의 농산물 수확체험과 꽃차, 두부, 떡 만들기 등의 안전 먹거리 로컬푸드 요리체험을 실시해 농촌의 실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난 5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로컬푸드 이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4회차인 9일에는 소비자 40명이 송광 모후실에서 만난 차를 방문하여 꽃차 만들기를 체험하고 로컬푸드 비빔밥 시식과 동네 안길 걷기를 실시하게 된다.
- 팸투어에 참가한 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농산물 수확도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어 로컬푸드에 대한 믿음이 한층 높아졌으며, 앞으로 직매장도 자주 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타 팸투어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 741-88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내년에 ‘농업용 드론 전문반’ 운영

- “효율성과 기동성 등으로 일손 절감, 농약중독 예방효과” 농가 관심 고조 -

- 항공 및 광역방제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약방제 등을 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나주시가 농가들의 드론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는 내년도 신규 우수시책으로 2017년 초에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전문반을 운영,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부문에는 여름철 병해충 방제작업에서 효율성과 기동성, 때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율비행 등이 장점으로 집중 부각됐으며, 지난 8월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개최한 농업용 방제기 드론 시연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농약방제를 실시할 경우 일손 절감효과는 물론 농약 살포로 인한 농약중독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주시 농촌진흥과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는 다르게 충분한 교육과 기술을 익힌 후에 적용해야 하며, 특히 농업용 드론 용량이 12kg 이상의 경우는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농업용 드론 전문교육을 비롯해서 어려운 농업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새로운 화훼 소득 작물 안개꽃 출하

- ‘물올림 기법’, ‘드라이플라워’ 다양한 활용으로 젊은층 관심 높아 -

- 광양시가 화훼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숙근 안개초’ 일명, ‘안개꽃’이 본격적으로 화훼시장에 출하됐다.
- 시는 올해 3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봉강면 지곡리 일원에 3,960㎡ (1,200평) 규모로 안개꽃 시험재배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 aT화훼공판장과 도매시장에 출하돼 속 당 2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안개꽃은 한창 꽃이 피었을 때 안개가 서린 것처럼 희뿌옇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 오랫동안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하는 품목이었지만 튀지 않는 소소함으로 최근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키포크 (Kinfolk) 스타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특히, 물감을 푼 물에 꽃을 꽂아 색이 올라오게 하는 ‘물올림’ 기법을 활용한 안개꽃은 소량으로 꽃다발을 만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드라이플라워(말린 꽃)로 만들면 오랫동안 감상이 가능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이상호 매실원예과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출하를 통해 화훼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훼농업이 광양시 대표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광양시는 2012년도부터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피해를 극복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땅심 키우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11월 말까지 신청

- 고흥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2017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유기질비료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농업인이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또한,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신청했지만, 농지의 경작자가 변경되었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점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신중한 신청이 요구된다.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자격이 현행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맥류 만파대책 현장기술지도 나서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가을철 잦은 강우로 논 배수가 불량해짐에 따라 늦어지는 맥류 파종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맥류 만파대책 기술 중점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지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다.
- 맥류은 겨울나기 전 5~6매의 잎을 확보해야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으므로 이번 달 중순까지 파종을 마쳐야 고품질 보리를 재배할 수 있다.
- 파종기가 늦어져 늦뿌림 할 경우에는 종자 파종량을 기준량보다 20~30% 증량 파종하고, 대신 비료는 밑거름 기준량에 인산·칼리 비료를 20~30%까지 증량시비 하면 입모율 확보나 내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또한,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내고, 논 끝머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내고 서로 연결되게 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 적기 파종, 시비, 월동 전후 관리 등을 준수하여 맥류 안전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가별 현장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은 온난한 해양성기후를 바탕으로 매년 1,892ha의 맥류(쌀보리 1,282, 맥주보리 369, 밀 241ha) 재배를 통해 연간 85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푸른 들판을 만들어 관광자원 및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작물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획득

- 북면 숲속의 베리팜 품질인증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기대 -

- 화순군(군수 구충곤) 농촌교육농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 교육농장 품질인증을 획득해 농촌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화순군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촌교육 농장 ‘숲속의 베리팜’(북면 소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 농장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학교교육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육성을 목표로 농업자원, 교육운영자의 능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분야 27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한 농촌교육농장을 선발한 제도다.
- ‘16년에는 전국 43곳, 전남에서는 화순군 등 6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관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농가는 ‘15년 1농가, ‘16년 1농가 등 총 2농가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해왔다.
- 문형일 숲속의 베리팜 대표는 “농촌교육농장이 품질인증을 받아 농촌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체험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농촌 교육농장의 수요증가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17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



■ 강진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본격 시작

- 12월 20일까지 관내 11개 농협 등에서 매입 -

- 전남 강진군이 지난 8일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섰다.
- 금년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량은 32만 7632포대이며, 그중 건조벼 매입량은 31만 1574포대로 각 지역농협 및 개인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매입을 병행해 실시한다.
- 8일 강진읍 호산창고에서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관내 11개 농협 및 개인 창고에서 82회에 걸쳐 매입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에서 7명의 검사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어 매입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금년도 강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일미·새누리벼 2개 품종이다. 출하 때 수분함량이 13~15%이내여야 하고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에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강진원 군수는 “차량이나 경운기 등으로 공공비축미 출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활하게 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겠다”며 올 한해 벼농사를 짓느라 고생한 주민들을 격려했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내년 1월중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해 사후정산하게 되며, 우선지급금은 1등급 기준으로 4만 5천원(40kg)이다. * 출처 : 강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 명품배, 해외시장 200톤 수출길에 올라

- 순천시 주력 과수인 명품배가 올해도 해외시장으로 수출된다.
- 순천 배는 지난 2008년 처음 동남아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해오면서 그 양이 점차 늘어 지난해 80톤에 이어 금년에는 200톤이 수출 길에 오른다.
- 나라별로는 대만과 베트남 각 80톤, 하와이는 40톤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배의 생산량이 40% 이상 증가하고 해외 거래 선을 신규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다.
- 그 동안 순천시는 재배농가(낙안·주암) 및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배 수입국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품종과 크기, 당도로 과실을 생산하는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유통과정의 상품성 보존, 수입국의 검역절차 등 모든 과정의 위해요소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국내 생산 및 판매시기와 해외 수출시기를 분리시켜 재배농가의 노동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 수출길에 오르는 배는 생산농가에서 1차로 수확·선별하고, 2차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승주)에서 상품성 및 크기별로 분류되는 공동선별과 포장 단계를 거쳐 컨테이너에 오른다.
- 이때 수출국의 기호도에 따라 15kg 한박스 기준으로 하와이는 40과, 베트남은 30과 내외, 대만은 24과로 차별화 했다.

* 출처 : 순천시

■ 논산 고구마 홍콩 첫 수출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논산고구마 연구회(회장 김광영)가 지난 11월3일 논산고구마를 홍콩으로 첫수출한다고 밝혔다.
- 논산의 농특산품인 논산고구마는 전남 해남, 여주에 이어 전국 3대 주산단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황토고구마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논산농업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 품목이다.
- 이번 수출은 2015년부터 국내개발 품종인 풍원미를 중심으로 NS Food Global 홍콩법인 합자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상호 방문을 시도하며 소량이지만 1.5톤의 첫 홍콩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 또한, 홍콩으로 수출하는 고구마는 국내에서 인기없는 중·하품으로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구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농가에 희소식을 전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딸기·배 등 지역농산물의 수출 기회도 증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출처 : 논산시



■ 올해 산 제주감귤 대미 수출 개시

- 2일 첫 선적 시작 매주 4~5컨테이너 수출 ... 5개 지역농협 참여 600톤 수출 목표 -

-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중문농협 수출 선과장에서 올해 산 감귤의 대미 수출 선적이 처음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미국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 올해 산 제주 감귤의 미국 수출은 서귀포농협과 중문·제주·조천농협, 제주감귤농협 등 5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수출 목표량은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600톤이다.
- 올해 산 감귤의 대미 수출농가의 수취가격은 kg당 1천원이며, 올 연말까지 매주 4~5컨테이너 물량의 제주감귤이 미국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 전후에 비가 잦는 등 기후 영향으로 491톤 수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규바이어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600톤 수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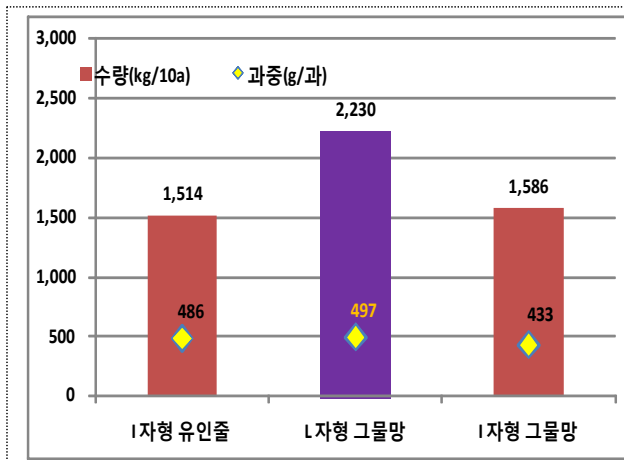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유인방법 설정

□ 개발기술 내용

- 단호박은 농가의 고소득 작목 인식확대와 수요증가로 면적이 증가
- ('06) 923 → ('07) 1,436 → ('08) 1,590 → ('10) 1,769ha
- 소비자들의 구매 요구에 부응한 연중생산 작형별 재배기술 미확립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단호박 교재작성 및 영농교육 교재 활용
- 단호박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재배 단지조성 : 5ha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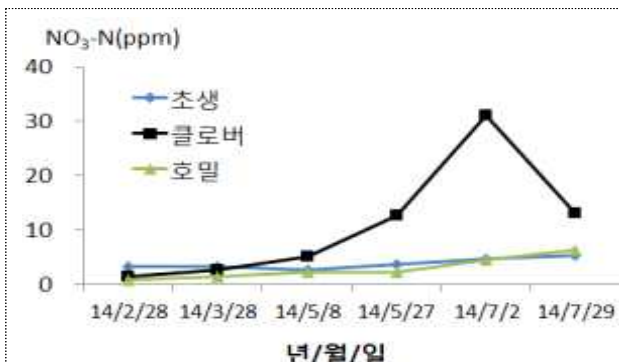
- 단호박 무가온재배 유인방법 설정(영농)
 - 수량 47%증 : L자형 그물망 2,230kg/10a 관행 유인 1,514kg
 - ⇒ 2,909천원/1,000m²/년 추가 소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나택상, 손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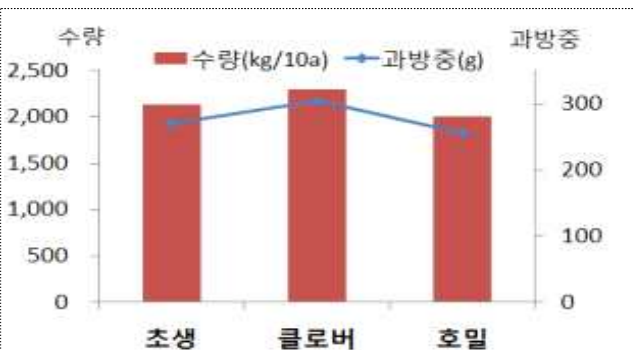
■ 포도 “캠벨얼리” 간이 비가림 유기재배 과원의 클로버 녹비 재배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화이트클로버를 재배하여(전년도 10월 중·하순 파종) 5월 상순 및 6월 상순 2회 예취하여 토양에 환원 ⇒ 토양내 질산태 질소 함량 증가
- ※ 꽃떨이 증상이 심한 대립계 품종의 경우 생육 초기 토양 내 무기태 질소 함량의 증가로 생리적 피해 발생 주의



【표토관리방법에 따른 질산태 질소 함량변화】



【표토관리방법에 따른 포도 수량특성】

※ 점적관 규격 : 점적공의 시간당 공급량 1.05L/h, 점적공 간격 10cm

※ 관수방법 : 관수시간 2분, 주관의 관수압력 1.5kg/cm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전국 포도 유기재배 대상 영농현장 기술지원 활용
- 포도 유기재배 토양양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관행(자연초생) 대비 클로버 녹비재배 포도 수량 약 8% 증가
- 질소 등 양분의 자연순환 이용률 증가 및 추가양분 공급비용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선국

■ 토마토잎말림바이러스(TYLCV)의 토마토 저항성품종 추천

□ 개발기술 내용

- 토마토잎말림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품종으로 대추형(TY 티니, TY 센스큐), 방울형(티티찰, TY 스마프사아, 티아라 TY), 완숙형(TY 킹덤, TY 홈런, TY 알토랑) 등 8종을 추천함

종류	품종명	과중 (g)	당도 (Brix)	상품수량 (kg/10a)	유전자	발병도	저항성 평가
대추	티티찰	16.6 a	7.2 bc	3,656 a	Ty-1, 3	0	저항성
	TY 티니	16.0 a	7.6 a	3,419 ab	Ty-1, 3	0	저항성
	TY 센스큐	15.8 a	7.1 c	3,124 ab	Ty-1, 3	0	저항성
	미니찰(대조)	15.7 a	7.5 ab	2,549 ab	-	24.4	감수성
방울	TY 스마프사아	16.7 a	5.7 d	2,880 a	Ty-1, 3	0	저항성
	티아라 TY	16.3 a	6.2 c	2,861 a	Ty-1, 3	0	저항성
	스마일(대조)	14.7ab	7.0 a	1,439 ab	-	40.0	감수성
완숙	TY 킹덤	224.1 ab	4.4 ab	4,196 a	Ty-1	0	저항성
	TY 홈런	159.4 bc	3.6 c	3,863 a	Ty-1, 3	0	저항성
	TY 알토랑	189.3 ab	4.4 a	3,503 a	Ty-1, 3	0	저항성
	다복(대조)	184.1 b	4.4 a	3,972 a	-	91.1	감수성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토마토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대농민 홍보 및 리후렛 발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저항성품종 재배로 억제작형에서 소득 3,612,610원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 쌀 유기재배 유형별 품질 및 기능성성분 함량

□ 개발기술 내용

- 주식용 쌀 생산을 위한 유기재배 유형 : 예술자연재배
 - 단백질 함량이 낮고 취반미윤기치가 높으며 노화도가 낮음
-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유기재배 유형 : 자원순환재배
 - 총페놀성화합물 및 오리자놀 함량이 높으며 항산화효과 우수

재배 유형	단백질 (g)	취반미 윤기치	호화특성(RVU)		재배 유형	총페놀성 화합물 (mg/100g)	피틴산 (g/100g)	γ -oryzanol (mg/100g)	항산화 효과 (%)
			최고점도	노화도					
일반 유기	6.1	77.8	216	26.36	일반 유기	175	1.03	68.86	6.3
예술 자연	5.7	80.8	229	24.25	예술 자연	216	1.01	70.91	6.9
자원 순환	6.5	70.3	226	27.14	자원 순환	217	0.95	74.10	7.1
관행	6.8	67.2	243	26.25	관행	205	0.92	86.46	6.9
【품질 및 호화특성】					【기능성 성분 및 효능】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유기농산물 재배농가 교육 시 우수성에 대한 정보제공
- 유기재배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유기재배 농법에 따른 쌀의 우수성 평가로 쌀 유기재배 시 재배방법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석



■ 전남도 특산물 섬초 가공기술 개발로 명품화 추진

- 비타민 C, E, 엽록소 등 영양성분 우수, 건나물 등 편이제품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 특산물인 신안 섬초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양성분의 우수성과 가공제품 개발 등 명품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겨울철에 생산되는 섬초는 일반시금치에 비해 잎이 두껍고 단맛이 많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섬초의 차별화를 위하여 수확 시기별로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특히 1월 섬초의 당도가 가장 높았고 비타민 C, E, 식이섬유, 미네랄, 엽록소 함량 등이 많았다.
- 섬초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지만 수확시기가 12~3월로 짧고 저장성이 낮아 대부분 생것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리법과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고품질 섬초 편이제품 제조를 위한 가공원료의 세척방법은 수돗물에 0.2% 구연산수를 첨가하여 공기방울로 3회 세척하는 것이 잔존하는 미생물 수와 이물질량이 적었으며, 섬초의 녹색을 유지하는 블랜칭 처리조건으로는 천일염 1%를 첨가하여 100℃에서 끓는 물에서 30초간 데친 것이 정도, 녹색도, 비타민 C, 기호성이 우수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강정화 연구관은 “앞으로, 섬초의 선도유지를 위한 저장방법과 고부가가치 건나물, 냉동제품 등 편이제품 및 조리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딸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농가 경영기록 데이터 이용 컨설팅으로 경영상 문제점 쉽게 찾아 해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지난 11월 9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에서 딸기 재배농가 19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깨동무 컨설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전남농업기술원 손장환 박사가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컨설팅 기법으로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전문가가 경영기록 분석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이번에 실시한 딸기 재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은 지난 6월 사과, 8월 참다래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참여농가 소통을 위한 어깨동무 의식을 시작으로 경영기록장 서로 돌려보기, 농가간 경영기록장 기록수준, 수익성, 생산비 등을 비교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어깨동무 컨설팅에 참여한 담양군 문유진 대표는 “경영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정밀한 경영분석을 위해 경영기록장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과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깨동무 컨설팅’을 내년에는 품목별 연구회와 작목반까지 확대하고, 컨설팅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산 쪽 천연 화장품으로 변신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1월 10일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 기술 천연쪽 정유 생산기술과 화장품 제조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기로 하였다.
- 기술을 이전 받는 해풍쪽사업단은 거문도·조도 등 섬에서 생산되는 자생 해풍쪽을 이용하여 천연정유와 방향수 등 향장 소재를 사업화할 계획이다.
- 해풍쪽사업단은 거문도 해풍쪽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높아진 브랜드가치를 이용하여 향장소재를 대량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거문도내에 아로마 쪽스파시설을 만들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관광 힐링 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바바나나화장품은 항염증과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우수한 천연쪽 정유와 방향수를 주원료로 한 천연화장품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를 비롯한 중국을 중심으로 천연쪽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판매 출시할 계획에 있어 전남산 쪽은 먹는 식재료를 뛰어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향장소재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조경숙 박사는 몇 해 전부터 거문도를 비롯한 조도 등 섬에서 생산되는 청정지역 쪽을 천연향장소재로의 사용가능성을 연구하여 왔는데, 전남산 쪽의 천연정유와 방향수에는 항염증 효과가 좋은 카리오필렌과 아줄렌 성분이 다량 함유한 것을 확인하였고, 쪽 향기는 스트레스 완화와 마음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것을 밝혀 아로마테라피로써 활용가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가공적성 우수한 친환경 조사료 벼 영우 개발

- 수량과 활용성 높아 쌀 수급조절 역할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친환경 조사료 이용성과 우수한 가공적성을 동시에 가진 사료용 벼 ‘영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개발한 ‘영우’는 기존 사료용 벼에 비해 출수기를 앞당기고, 수량성, 내병충성, 용도 다변화 가능성 등을 높여 생산성과 산업용으로써의 높은 가치를 지닌 품종이다. 기존 사료용 벼보다 꽃 피는 시기를 10일 이상 앞당김으로써 등숙비율 향상을 통한 충실한 종자생산이 가능하며, 잎, 줄기, 이삭 모두를 포함하는 지상부 건물수량은 20톤/ha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사료용 벼 중 단연 최고이다.
- 또한, 벼의 주요 병해충인 도열병, 흰잎마름병(균계 K1~K3, K3a),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및 바이러스 매개충인 애멸구에도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아밀로스 함량이 27.3%로 쌀면 전용 품종인 ‘새미면’과 ‘팔방미’ 만큼 가공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우’는 우리나라 중부 및 남부평야지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농가에서 품종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 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최대수량을 확보하려면 다비재배(질소 18kg/10a)가 필요하고, 메소트리온이나 벤조비사이클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초제 사용 시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영우’ 종자 공급을 원하는 농가, 업체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 종자사업팀에 문의·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먹을 수 있는 잡곡 피의 항당뇨 효과 밝혀

- 혈당 및 콜레스테롤 함량 30%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잡곡 식용피가 당뇨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 식용피는 조선시대까지도 오곡의 하나로 재배면적이 10만ha가 넘는 중요한 곡식이었으나, 산업화와 쌀 자급 이후 식용으로서의 소비가 거의 사라졌다.
- 식용피의 주요 기능성분은 루테올린, 트리신 및 캠페롤 등이며, 이러한 성분들은 미백과 항산화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반용 뿐만 아니라 국수용, 죽용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참살이(웰빙) 기능성 소재로써 가치가 높다.
- 동물실험은 쥐에게 당뇨병을 유발해 정상식이를 한 그룹과 정상식이와 식용피 추출물을 같이 먹인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 80% 에탄올에 추출한 식용피 추출물을 8주간 먹였다. 실험결과, 식용피 추출물을 먹인 그룹이 정상식이를 한 그룹보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30% 줄었다. 또한, 식용피 80% 에탄올 추출물은 염증 억제에 대한 활성도 나타냈다.
- 쥐에게 식용피 추출물을 600mg과 1,200mg/kg 일주일간 먹인 뒤 염증유발물질을 투여해 염증을 일으켜 붓도록 만들었다. 실험결과, 24시간이 지난 뒤 식용피 추출물을 600mg/kg 먹인 그룹은 먹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붓기가 20% 감소하고, 1,200mg/kg 먹인 그룹은 거의 붓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늦게 심은 양파 관리는 이렇게!

- 양파 정식 늦어져 안정한 겨울나기 위한 기술지원 실시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올해 양파 묘를 본밭에 옮겨 심는 시기에 비가 자주내리면서 정식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년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재배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 경남도에 따르면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의 파종률이 작년 이맘때 95%정도이었으나 올해는 60%에 그치고 있어 더딘 작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은 늦어진 양파 묘 정식과 예년에 비해 생육 상태가 불량한 양파 묘 등 순조롭지 않은 올해 양파 농사의 문제극복을 위해 옮겨올을 잘 나기 위한 재배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어느 해보다 양파 육묘기간 변덕스러웠던 기상이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했고,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남부지방 마늘 파종작업이 늦어지면서 양파 정식작업도 동반 지연되는 애로를 겪고 있다.
- 기상청(합천군 기준)에 따르면 10월의 평균온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강수량은 182.6mm로, 평년보다 4.3배가 많았고, 일조량도 114.5시간으로, 평년보다 86.7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양파 묘에서 습해와 세균성 무름병, 잿빛곰팡이병 발생도 증가 한데다 양파 묘를 옮겨 심을 본밭 준비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정식작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양파 정식에 알맞은 묘는 육묘기간 45~55일, 줄기 굵기 6~7.0mm, 키 25~30cm, 엽수 3~4매 정도이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웃자라지 않아야 한다.
- 조생종은 10월 하순에, 중만생종은 11월 상순에 정식 작업을 끝내야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
- 만일 11월 15일 이후로 정식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정식 후 10일 지나서 부직포로 이중피복을 해주면 서릿발에 의해 죽는 포기가 크게 줄어든다.
- 양파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면, 11월 20일에 정식한 양파를 10일 후에 부직포로 피복하고, 그 해 겨울을 난 후 2월 하순에 제거하였을 때 10a 당 양파수량은 6,927kg으로,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보다 99.2% 증가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늦게 정식한 양파 묘가 겨울동안 서릿발 피해에 취약하여 죽는 포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부직포로 보온피복을 해 주면 땅 온도를 2.0℃ 높여주어서 결주 발생이 10% 미만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11월 10일 이전에 양파 묘를 심었을 때는 부직포의 피복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겨울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추대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직포를 덮지 않는 것이 좋다.
-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 이종태 연구사는 “고품질, 다수확 양파를 위해서는 겨울을 잘 나야 하는데, 밭 준비 작업이 좀 늦더라도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 두둑을 충분히 높게 하여 비닐을 멀칭하고 11월 15일 이후에 정식한 양파는 부직포를 덮어 주는 것이 월동에 좋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해바라기 재배와 태양열로 토양 소독하면 인삼 이어짓기 피해 예방

- 2년 동안 2회 처리, 뿌리썩음병 발생률 낮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인삼 수확 뒤 해바라기를 재배해 토양과 섞은 다음 비닐을 씌워 태양열 소독을 하면 인삼 이어짓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인삼은 이어짓기 피해가 심한 작물로 인삼을 재배한 곳은 10년 이상 지나야 다시 재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토양 소독기술이 필요하다.
- 인삼 이어짓기 피해는 거의 대부분 뿌리썩음병 때문에 발생하며, 토양 속에 존재하는 뿌리썩음병원균은 일반 약제 등으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땅속 온도를 높여주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6년근 인삼을 수확한 연작지에 이듬해 봄 해바라기를 재배하고 7월 중·하순경 트랙터로 땅을 갈아 해바라기 식물체를 토양에 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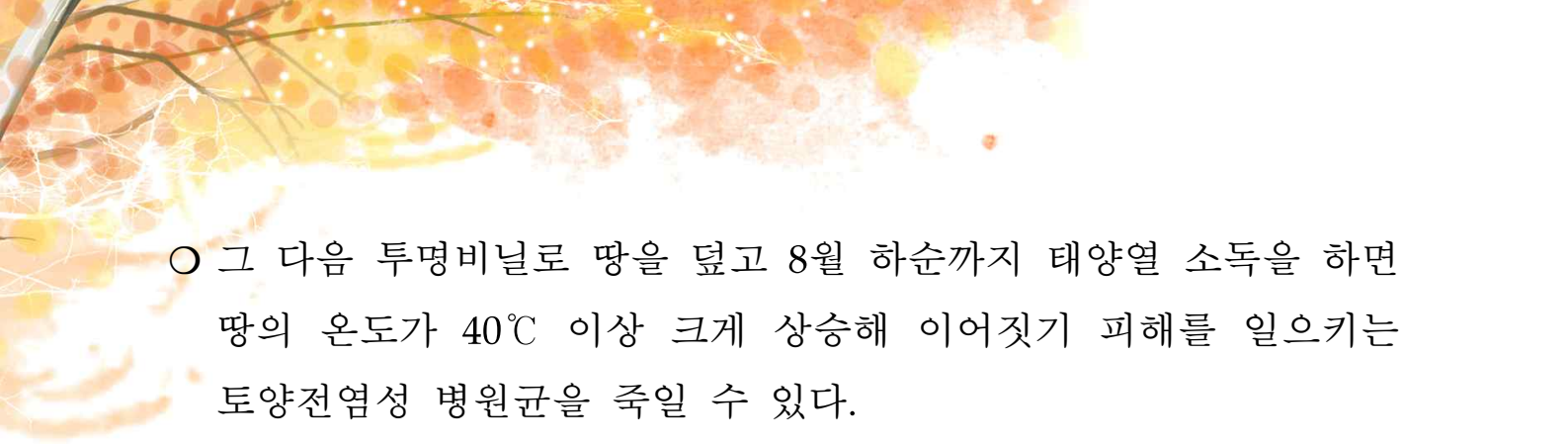


▲ 인삼 연작지에 해바라기 재배



▲ 해바라기 식물체 토양혼입 후
비닐피복으로 태양열 소독



- 
- 그 다음 투명비닐로 땅을 덮고 8월 하순까지 태양열 소독을 하면 땅의 온도가 40℃ 이상 크게 상승해 이어짓기 피해를 일으키는 토양전염성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
 - 해바라기는 녹비작물로 많이 이용하는 수단그라스보다 생육이 왕성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생체 투입량이 많아 토양소독 효과가 더 크다.
 - 또한 수단그라스 종자보다 종자 크기도 커 봄철 가뭄에도 비교적 발아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태양열 소독처리는 1년에 1회씩, 2년 동안 총 2회 처리하면 뿌리썩음병 발생 억제에 효과적이다.
 - 해바라기 재배 뒤 태양열 소독을 1년 동안 1회만 처리했을 때는 2년생 인삼에서 뿌리썩음병이 20% 발생했으나 2년 동안 2회 처리했을 때는 13% 발생해 1회 처리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 2년 동안 무처리 시 뿌리썩음병 발생률은 74.3%로 높았다.
 - 이어짓는 경작지에서 1~4년생 인삼 중 2년생 인삼이 뿌리썩음병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과 이성우 농업연구관은 “이번 연구로 기존 10년 이상 걸리는 재작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4~6년근 인삼에서의 병 발생 정도를 조사해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어짓기 피해 예방기술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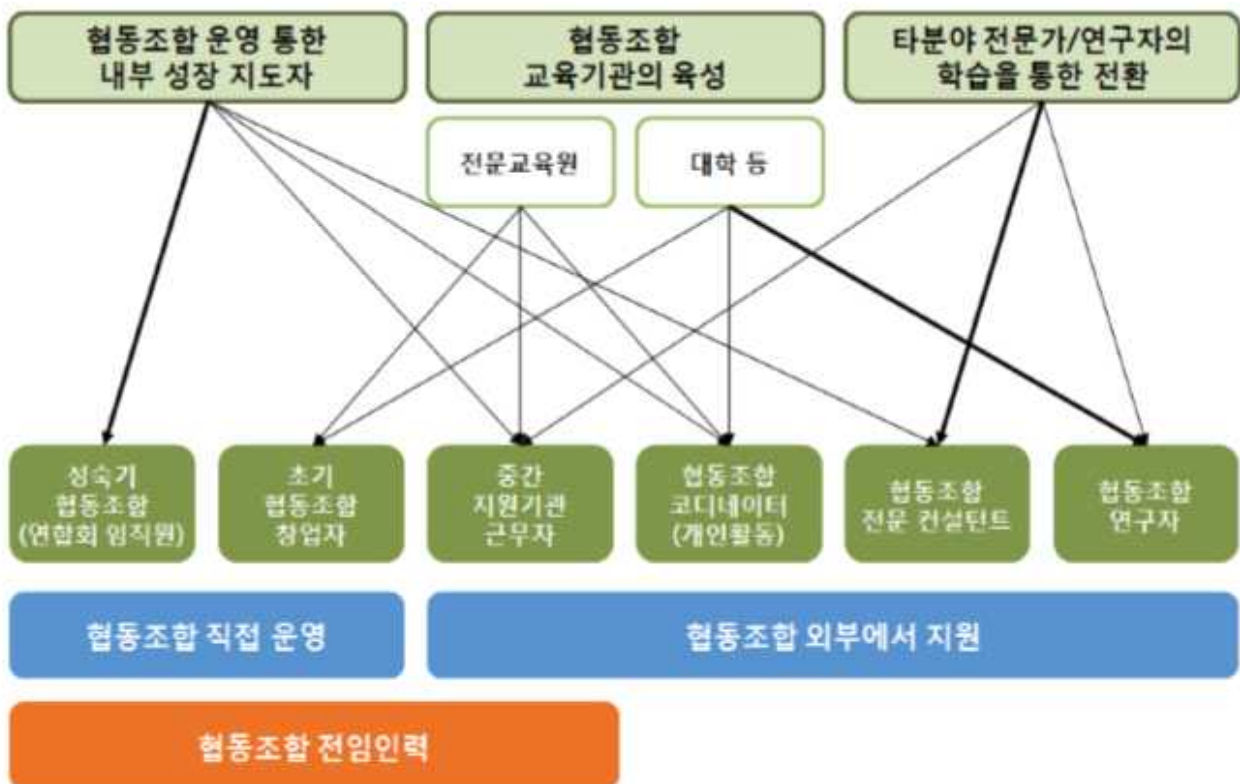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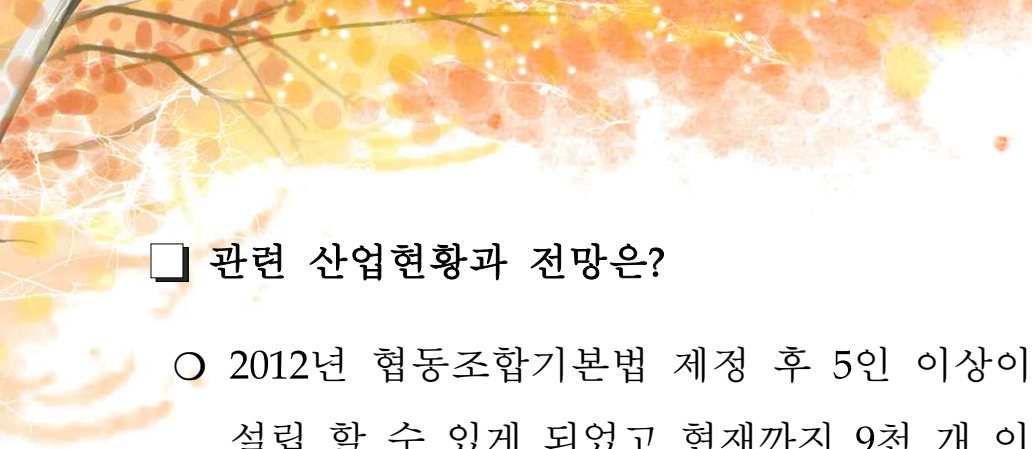
◆ 협동조합플래너

□ 어떤 일을 하나요?

- 협동조합플래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혹은 외부에서 조정,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과제를 분석한 후 개선 내용을 제안하고, 이 제안 과제가 실행 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 함께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고 결합시키며, 상담과 지도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료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란?(쿵비즈협동조합 교육자료, 2015)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 9천 개 이상이 설립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94.5% (8,967개)가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평균 3.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현재 약 3만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협동조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협동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직, 단체 별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 사회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 그 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 설립·운영 절차, 각종 통계,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전남도, 올해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5명 확정

- 고소득 쌀 생산 등 5개 분야 농업인 대상 선정 -

- 전남도는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공헌한 5개 분야(고소득 쌀 생산, 원예·특용작물, 유통·가공, 축산, 임업)의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고소득 쌀 생산 분야에 신안군 조영범(50) △원예·특용작물 분야 강진군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최성주) △유통·가공분야 보성군 최영기(49) △축산분야 장성군 오재곤(53) △임업분야 보성군 김영민(57여)씨 등 5명이다.
- 수상자는 해당분야에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농업인대상은 그동안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시·군과 농업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후보자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평가반의 현지실사를 거쳐 전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5개 분야 5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11일 개최되는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로운 상패를 수여 받게 된다.
-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수상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시·군을 포함한 각종 농업인 교육 등에서 성공 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전남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선도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 11.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주요 지침 개정내용은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 시·도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이다.
 -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비료 제조 시 원료 투입과정, 생산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비료 제조업체에서 관련된 정보(원료투입량, 제품생산실적 등)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규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일정기간 제외된다.
- * 원료투입량과 제품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현장 점검), 최소 생산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6개월~1년),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경고~6개월)
- 둘째,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농가에서 사용토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을 신설하였다.



○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이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수령을 포기하는 물량을 파악하고, 파악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일정시점*까지 농협에 비료 수령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 상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9월말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자재 사업 추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 토양검정 실적, 친환경비료 사용실적, 지자체 노력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재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협 및 비료업체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우수한 비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업인이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마을이장을 통한 전달,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17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다수확품종(황금누리·호품) 제한

-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 및 쌀 적정생산을 위해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품종에서 ‘황금누리(단수: 574kg/10a)’와 ‘호품(600kg/10a)’은 제외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단위면적당 수확량, 소비자 선호도, 지자체 기 선정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별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황금누리와 호품을 제외해야 한다.
- 농식품부는 ‘18년에는 벼 보급종 단계부터 다수성이면서 시장선호도가 낮은 품종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보급종에서 제외된 품종을 제외하고, 시·도별 매입대상 품종 또한 현재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중 다수확 품종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대표적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등의 재배면적 비율은 ‘12년 17.9에서 ‘15년 30.1%로 12.2% 증가되었음에도, 공공비축 매입비중은 ‘12년 35.3에서 ‘15년 5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 같은 현상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품종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다수확 벼 품종재배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맞게 공공비축미의 품질 또한 높이고, 다수확 품종의 재배 확대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내년도 벼 종자를 사전에 확보합시다

- 벼 수발아 피해로 '16년산 정부 벼 보급종 공급이 3개 품종으로 제한되고, 공급량도 지난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듭니다.
 - 공급 가능량 : 2,066톤(새누리 1,800, 운광 155, 미품 111)
- 특히 농가에서 선호하는 신동진·새일미·일미를 비롯하여 황금누리 보급종도 수발아 피해로 농가 공급이 아예 불가능 합니다.
- 농가에서는 내년 벼농사에 필요한 볍씨를 수발아 피해가 없는 종자로 자가확보 하거나 농가 간 자율교환하여 사전에 확보합시다.
- 한해 농사는 종자부터 시작됩니다. 벼 종자를 미리 준비하여 내년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합시다.

* 출처 : 전라남도



9.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저가전략의 수입산 우유 확대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8월 중국 우유(액체) 수입량은 42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3.4% 증가하였음. 업계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의 연간 우유 수입량이 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2014년 수입량(30만톤)의 2배 이상임
- 중국 정부가 수입 분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해 영유아 배합 분유 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중국 유제품 판매 업체는 점차 마시는 우유 수입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 2016년 6월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엄격한 분유 수입 규제 정책 발표하였음.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 분유 브랜드가 2,500여 개에서 50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음. 반면 2016년 기준 중국의 수입 우유 브랜드는 최소 300개이며 증가 추세임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수입 우유 평균가격은 1,800달러/톤, 2014년은 1,300, 2016년 8월은 968달러/톤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수입산 우유 가격이 중국 국산 우유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해외 원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임(500g당 약 2위안). 수입통관세 15%, 증치세 17%, 부과 및 기타 운임 등이 포함된 해외 원유 원가는 약 4~7위안/ℓ 임
- 반면 중국 원유 가격은 500g당 약 4위안으로 해외 원유 가격의 약 2배이며 중국 국내 유제품 업체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도 높은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함



- 중국 최대 유업체인 이리(伊利)와 명뉴(蒙牛)의 2016년 상반기 광고비는 각 40억 7,000만위안, 26억 5,000만 위안으로 총 수입의 10~14%를 차지함. 종합적으로 중국 국내산 우유 원가는 수입 우유 원가보다 약 30~50% 높음
- 중국 시장에서 수입 우유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 우유의 식품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우유 수입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현재 멸균 우유는 포장 식품으로 중국에 수입되며, 해관 비안(備案, 담당부서에 문서를 보고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 및 통관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는 경우 통관 완료까지 3~5일이 소요되며 검사검역부(檢驗檢疫) 통과는 15~30일이 소요됨
- 중국의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유제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요인으로서는 중국 정부의 두 자녀 정책 시행과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 경제 성장 등이 있음
- 신선 우유의 유통 기한은 약 2주이며, 중국 대형 마트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유통 기한이 남아있어야 함. 운송 시간 단축이 중국 수입 우유 시장 선점의 주요 사안임
- 한국의 지리적 장점을 살린다면 여러 브랜드의 신선 우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 우유 시장에 진출할 한국 기업은 중국 유제품 수입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 한국에서 보관한다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원 6나라의 중요 농업 유전자원을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중복 보존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일, 농업유전자원센터 대회의실(경기도 수원)에서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과 AFACI 회원 6나라(인도네시아·키르기스공화국·라오스·몽골·필리핀·베트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전자원 중복 보존 기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기탁식은 농촌진흥청이 2012년 3월부터 AFACI를 통해 추진한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따라 회원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안전 중복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날 6나라의 고유자원 2천점에 대해 자원별로 200알 이상씩 알루미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영하 18도의 저장 공간에 장기 보존한다. 이번에 기탁된 유전자원을 블랙박스 형태로 보관하며 검역이나 조사 등의 목적 이외에는 보존 중인 유전자원을 꺼내지 않는다.
-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8년 8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로 인증 받은 바 있다.
- 이번 중복 보존 기탁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AVRDC)와 미얀마·네팔·캄보디아 등 아시아 10나라가 기탁한 유전자원 총 1만 9천 자원을 보존하게 됐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중복 보존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식량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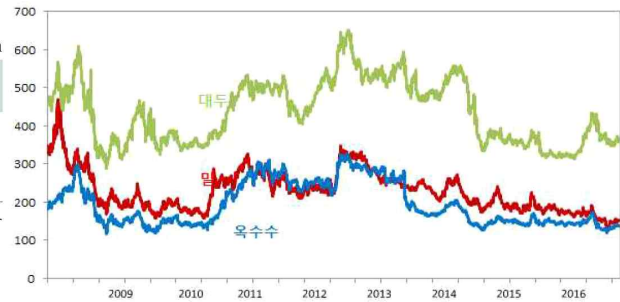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1. 14.(시카고 선물거래소)

USDA 수급보고서를 전후하여 한 주간 하락세를 보인 곡물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1.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0)	2015 평균
밀	148.07	▼0.4%	150	186
옥수수	133.93	▼0.9%	138	148
대두	359.49	▼1.1%	359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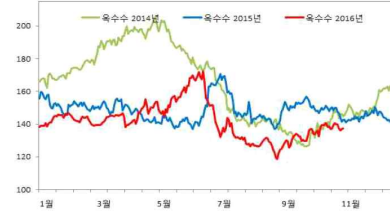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수출 수요의 약세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달러화 강세 또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집트 국가 곡물 바이어 GASC는 러시아 밀 60,000톤을 구매하였음. 트레이더는 GASC가 Aston으로부터 톤 당 \$192.50에 밀을 구매하였다고 말하였음. 지난 한 주간 밀 선물 가격은 중 2.7%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기록적인 수확량에 따른 재고량 증가가 옥수수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옥수수 가격은 야간 세션 동안 강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40일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선에 부딪히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지난 한 주간 옥수수 선물 가격은 중 2.3% 하락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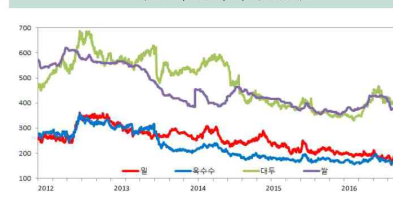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수출 규제에 따른 중국시장 약세에 대한 우려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달러화 강세 및 브라질 레알화 약세 또한 대두 시장에 압력을 가하였음. 브라질 레알화는 지난 주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로 5% 가까이 하락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링깃화 강세 및 예상보다 적은 재고량으로 인해 최근 4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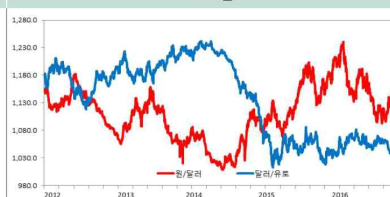
관련동향

- 밀, 대두 수출 프리미엄 강보합세, CIF barge price 하락으로 옥수수 베이스스 하락.
- 11월 국제유가는 OPEC의 생산량 증가 발표,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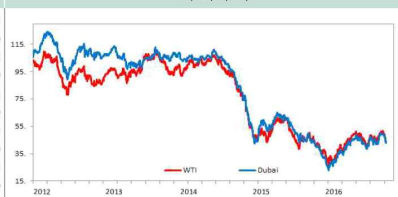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83	▼0.5%		원/달러	1,151.0 ▲0.5%
	옥수수	161	-		달러/유로	1.0887 ▼0.3%
	대두	388	▲0.8%		WTI	43.41 ▼2.8%
	쌀	347	-	국제유가	Dubai	43.7 ▲0.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1.10(수출가격), '16.11.11(환율), '16.11.1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작은 아이디어가 꽃 문화를 바꿉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생활 속 꽃 소비 촉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꽃 소비 생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12월 9일까지 한달 간 진행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참여방법은 썬곳(www.thinkcontest.com)을 통해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는데,
- 공모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 15점을 선발 하며, 상금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85%이상을 선물용으로 소비하는 독특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선물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생활속 소비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20일에 입상자가 선정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실행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택된 공모전 수상작은 꽃 소비 생활화 정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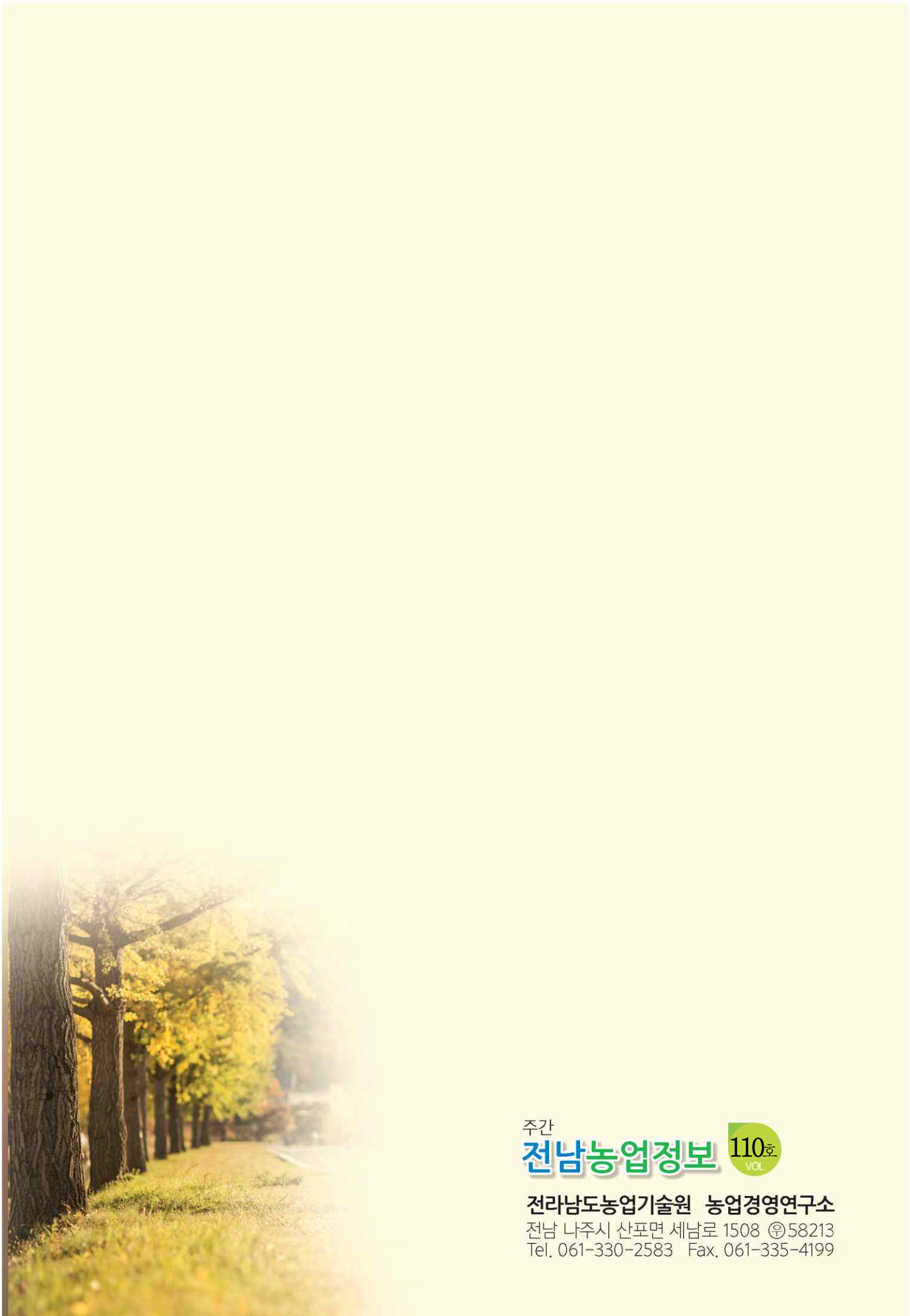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농업인들 TV속으로 뛰어 든다

- TV홈쇼핑 등 농식품 신유통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청탁금지법 등으로 위축된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공영홈쇼핑이 손을 잡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공영홈쇼핑과 협업으로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 TV홈쇼핑 입점요령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전국 9개 권역에 걸쳐 개최한다.
- 이제까지 농업인의 TV홈쇼핑 입점 관련 강의가 개별 농식품 교육기관에 일부 개설된 적은 있으나, 이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 TV 홈쇼핑 권역별 입점요령 설명회는 크게 강의와 품평회로 구성될 계획이다. 홈쇼핑 입점절차와 노하우,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 구성, 포장 및 배송 용이성과 같은 TV홈쇼핑 입점 대응 요령에 대한 심층 강의를 이루어진다.
- 더불어, 소포장 우수농산물(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한 신상품을 포함) 품평회 개최를 병행하여, 농업인간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 받아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남을 시작으로 9개 권역에 대해 릴레이로 진행된다.
- 각 지자체에서 설명회 장소 제공과 희망 농업인 신청 및 지역 내 홍보를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11월에 6개 지역, 12월에 3개 지역을 진행하며 전남·충남·제주·전북·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의 순서이다. 시간은 오후 2시로 동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역별 설명회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11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